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음 3월 3일) 제17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역경제 희망이 안보인다

올 1분기, 작년 4분기와 비슷

제조·서비스업 생산 '보합' 수요측면에서 소비·설비 건설투자 보합에 수출 감소

수출은 자동차 개선되나 중국 무역 보복이 큰 변수로

전북지역의 올해 1분기 경기는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업체 및 유관기관 5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드러났다.

생산 측면을 보면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는 보합을 나타낸 반면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전북의 주력 상품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지연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감소했으며, 상용차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조선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인도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어 생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6월 이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확은 중국의 태양광 수요 증가로 인해 폴리실리콘 생산이 증가했고, 음식료는 지난해 AI 발생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가공육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향후 제조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신차 출시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기계는 중국의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은 1/4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중의 경우 도소매업 중 백화점, 대형마트는 동절기 의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설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통신장은 내수부진, 로컬푸드 매장 등과의 경쟁심화로 지난 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다.

자동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조치 시행으로 소폭 증가했고, 운수업은 2016년 12월 KTX 호남·전라선 증편으로 버스여객 수송량이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으며, 관광은 문화관광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전분기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서비스업의 향후 전망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의 영향으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FIFA U-20 월드컵 대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관광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증가 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다.

자동차 판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조치,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통신장은 불철 농산품 출하 등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도 민간부문의 내수부진, 주택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미분양 발생이 이어지면서 전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됐으며, 향후에도 공급과잉, 금리인상 우려, 대선일정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에서 신차 출시에 따른 증가 등으로 현재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수도권과 강원권 및 제주권이 1분기는 소폭 경기가 개선됐지만 충청권과 호남권, 동남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인재용 기자



29일 전남 나주중흥골프리조트에서 열린 제6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전라도 지공심과 정책성 고취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확정

송 지사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 이미지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등 7개 분야 사업 추진 합의

'전라도'라는 이름이 정해진 1000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이 확정됐다.

송하진 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는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중흥골프리조트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방행정구역이 설치돼 조선 고종 33년인 1896년까지 878년간 사용됐으며, 내년 2018년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에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용역을 통해 발굴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과제를 3개 시도 실무진이 면밀히 검토해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용역을 통해 발굴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과제를 3개 시도 실무진이 면밀히 검토해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용역을 통해 발굴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과제를 3개 시도 실무진이 면밀히 검토해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주관 시도를 중심으로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10개의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은 먼저 서해안(군산~목포)철도는 서해안지역이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망과 같은 SOC가 구축돼야 함을 설명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은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국제관광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호남향우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3개 시·도가 번갈아 개최하기로 한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가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서 처음 열렸으며, 2017년은 전북, 2018년은 광주에서 열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2018년이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란다"며 3개 시·도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도의회 황현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촉구

도의회 황현 의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 영호남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장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측 고속도로망은 발달했으나 동·서측, 특히 호·영남간 교통망이 취약하다"며 "이로 인해 호·영남간 교류는 물론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간 교통물류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무주 구간과 대구~포항간 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며 "호·영남을 직접 연결하는 무주~대구 노선은 연결되지 않아 호·영남이 단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대구~포항간, 2007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데 이어 2010년 새만금~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2017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를 무주~성주, 성주~대구 노선으로 구분했다.

문제는 성주~대구 노선은 우선 추진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가검토사업에 반영하도록 확정·고시한 것이다.

황현 의장은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의 경제, 교통, 물류 중심축 연결과 영호남 교류를 위해 무주~대구간 사업추진이 시급하다"며 "이 구간은 호·영남 지역 동·서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19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서라도 전 구간의 사업작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장은 이날 15개 시도의회의장 및 협의회 측에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카드 한 장으로 전북도 주요 유료 관광지,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 숙박, 체험시설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권' 이용 및 홍보를 부탁했다. /인재용 기자

3면 - 문재인, 충청지역 경선서 1위 / 6면 - 저속은행의 '탐욕'... 사라지지 않는 약탈금리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